강수지-김국진 '열애 확인' 단독 보도에 얽힌 운명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용준 박수진 부부 하와이 현지 취재 중 만난 인연이 '딥 스로트'

THE FACT

강일홍 기자

유난히 무더웠던 2016년 8월 청량한 굿 뉴스가 연예가를 싱그럽게 장식했다. 중년 싱글 김국진-강수지 커플의 탄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달달한 뉴스' 였다. 〈더팩트 단독보도 이미지〉

김국진-강수지 '중년 사랑', 한여름 무더위 날린 청량 뉴스

2016년은 연예계에 유독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해다. 연초부터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먹구름을 드리우더니 유상무 박유천 이주노 이진욱 등 성추문 논란이 연달아 쏟아졌다. 이창명 강인 윤제문 등의 음주운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파문과 홍상수 김민희 불륜 논란 등이 연예가 뉴스를 장식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난데없는 '연예계 6월 괴담' 과 '음모론' 까지 대두될 정도였다.

세상사는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밝은 햇살도 있게 마련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그해 8월, 청량한 굿 뉴스가 연예가를 싱그럽게 장식했다. 예상치 못한 중년 싱글 김국진-강수지 커플의 탄생이었다.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속 커플 주인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던 '김국진과 강수지의 사랑' 은 시청자들의 간절한 바람만큼이나 애틋한 모습으로 수면

위에 등장했다. 축하 열기는 여느 특급 아이돌 스타 커플 탄생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가상커플서 실제 연인 탄생 후 국민적 축하 봇물, "진짜였네"

#이런 세상에나, 열애 기사에 감동해 눈물까지 찔끔거리게 될 줄^^(이*혜) #어머! 내가 다 뿌듯하네♡(김*지) #좋아 좋아 둘이 넘 잘 어울려(권*현) #우와~대박ㅋ(이*운) #헐, 아침부터 기분 좋당 멋있당 김국진ㅠㅠ(장*진) #내 진심 다해 기쁘고 기쁜 소식이야(박*란) #착한 국진 아저씨 행복하게 꽃길만 밟기를(김*정) #캬~ 간만에 훈훈한 연예기사네요. 두 분 다 진심으로 축하해요^^(김*원) #국진♡수지, 넘 잘 어울린당♡(문*채) #엄마 이거봐 어떡해 진짠가봐ㅋ(신*경)

2016년 8월 4일 〈더팩트〉가 ('불타는 청춘' 김국진♥강수지 결혼 약속, '진짜 커플' 됐다)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출고하자 온라인 세상은 온통 축하일색으로 뒤덮였다. 팬들은 마치 자신의 친구나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했다. 둘만의 은밀한 사랑을 키워가던 당사자들도 예상치 못한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짝 가십성 기사로 명멸(明滅)하는 아이돌 스타들의 흔한 열애공식과는 확실히 무게감이 달랐다. 주목도 역시 비교불가였다. 이 기사는 최초 보도 직후 불과 3시간 만에 3만여 명의 유저가 '좋아요'를 눌렀고, 이틀 만에 페이스북 도달률 300만 건을 넘어섰다.

'김국진과 강수지의 사랑'은 시청자들의 간절한 바람만큼이나 애틋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둘은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속 커플 주인공으로 화제를 모았다. 〈SBS '불타는 청춘'〉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시청자들은 방송 첫 회부터 원년 멤버로 참여한 강수지 김국진의 달달하고 다정한 '애정 케미'에 주목했다. 누리꾼들은 이혼의 상처를 안고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외로움을 겪은 두 사람에게 "실제로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적극적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1년도 넘게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남몰래 키워오면서도 연인설이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방송 콘셉트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펄쩍 뛰던 김국진, 근거 대자 "녹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김국진은 기사화 직전 최종 확인을 위한 통화에서 "강 기자님,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낭설을 들으셨느냐"며 펄쩍 뛰다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더니, 구체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취재내용을 밝히자 "녹화 중이니 보도 시점을 조금만 늦춰 달라"고 읍소했다. 김국진은 기사가 출고된 지 3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와 "강 기자님, 저한테 따로 밥을 사셔야겠다"고 껄껄 웃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처음엔 펄쩍 뛰던 김국진은 기사가 출고된 지 3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와 "강 기자님, 저한테 따로 밥을 사셔야겠다"고 껄껄 웃었다. 〈SBS '불타는 청춘'〉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강수지 노래 '보랏빛 향기' 중에서)

강수지는 둘만의 '애틋한 사랑'을 〈더팩트〉가 최초 보도한 다음 날, 자신이 진행하던 CBS라디오 표준FM '오후의 향기 강수지입니다'에서 청취자의 축하 인사에 "감사하다"고 공식 화답했다. 그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당일에는 잠이 안 와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그래도 이런 경험이 행복하다. 많이 응원해주고, 예쁘게 봐줘서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강수지 김국진 열애 단독 보도, 배용준 박수진 부부와 무슨 연관성?

궁금증을 풀어줄 새로운 소식이라면 뭐든 뉴스다. 도처에 널려 있는 이런 뉴스 중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장막(帳幕)의 스토리도 있다. 아주 사소한 실

마리 또는 매우 우연히 얻어들은 정보가 특종 보도로 이어질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뉴스 수집의 기본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확인이다. 철저히 단 둘만의 비밀로 유지해온 '김국진 강수지 열애' 보도에도 베일을 벗게 된 사연이 있다.

김국진 강수지 열애 확인은 엉뚱하게도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하와이 휴양과 맞닿아 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막을 모르고 있을 당사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두 커플 모두 서로 어떤 친분이나 교집합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김국진-강수지 커플 자신들조차도 처음 열애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배용준 박수진 부부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필자는 '김국진 강수지 열애' 보도 6개월 전인 2016년 2월 초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행적을 취재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인 2015년 12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하와이 호놀룰루 휴양지에 머물고 있었다. 돌연 박수진의 임신설과 원정출산설이 불거졌다. 덩달아 '배용준이 하와이 와이키키 중심가에 신축 중인 최고급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다' 거나 '별장형 주택을 마련하고 아내 박수진과 이주한다' 는 풍문이 꼬리를 물었다.

'2박 4일' 일정 '배용준 행방' 추적은 호놀룰루 백사장서 바늘 찾기

결혼식 이후 줄곧 외부노출을 꺼린 탓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스타 부부를 둘러싸고 번지는 소문의 진위(眞僞)에 관심이 증폭됐다. 필자는 당시 종편방송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패널로 출연하던 중이었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풍문에 대한 팩트 체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지 취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결과 박수진은 두 달째 하와이에 붙박이로 머물고 있고, 배용준이 소속사(당시 키이스트) 스태프를 대동하고 수시로 다녀간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연예가 소식은 사건 사고보다 가십성 뉴스가 더 흥미진진하다. 내가 궁금하면 남들도 궁금하고, 모두가 궁금한 이슈라면 팔로할 가치가 있다. '최소한 둘이 함께 머물고 있는 모습만 포착하면 된다' 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행적을 찾아 하와이로 향했다.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2박 4일' 의 짧은 일정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한 곳으로 알려진 하와이 맛집과 유명 쇼핑몰 등을 일일이 따라가봤지만, 호놀룰루 백사장서 바늘 찾기였다.

김국진 강수지 열애 확인은 엉뚱하게도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하와이 휴양과 맞닿아 있었다. 둘의 행적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만난 인연이 단서가 됐다. 사진은 멀리 내려다보이는 하와이 카일라우 전경과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머물렀던 렌트하우스. 〈강일홍 기자〉

세상일이란 궁하면 통하게 돼 있는 모양이다. 꼬박 하루 밤낮을 헤맨 뒤 지칠 때쯤 구세주가 나타났다. 수소문 도중 한 인회에서 만난 강미미(본명 강영미) 씨다. 그의 도움으로 막막했던 '배용준 박수진 잠행' 의 실마리를 찾은 건 행운이었다. 그는 하와이에서 30여 년째 거주하며 교민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었다. 강 씨가 교포사회에 사발통문을 띄워 '열흘 전 배용준 일행 중 한 명을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태워다줬다' 는 차량 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한 번 얻은 행운이 또 다른 행운으로, 하와이 휴양지 데이트 현장 포착

역시 교민인 이 운전자는 "배용준 씨가 하와이에 자주 오가는 건 교포사회에 잘 알려진 일인데, 마침 택시를 타신 분

이 배용준 씨 얘기를 꺼내 반가웠다"면서 "그분을 내려준 곳이 우리도 자주 가볼 기회가 많지 않은 카일라우 해변 고급 렌트하우스여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정보도 없이 무작정 하와이까지 달려온 필자가 불쌍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강 씨의 특별한 협조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그는 충분히 인심이 후덕하고 친절했다.

고마운 마음에 넉넉하게 웃돈을 얹어 주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야자수로 뒤덮인 카일라우 라니까이 비치는 세계 3대 해안 절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저택들은 평온한 가운데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주변에는 골프장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휴가를 즐기던 휴양명소다.

살다 보면 때론 운수대통일 때도 있어야 신바람이 난다. 한 번 터진 행운은 또 다른 행운으로 이어졌다. 운전사분이 알려준 집 앞에서 '뻔치기'에 들어간 지 불과 3시간 만에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에 나서는 배용준 박수진 부부를 포착할 수 있었다. 여유롭고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던 특급스타 부부의 오붓하고 다정한 데이트 장면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뻔치기'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에 나섰다. 결혼 이후 서울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둘만의 오붓하고 다정한 데이트 장면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더팩트 단독보도 이미지〉

배용준 부부 행적 취재 조력자는 '하와이 정착' 강수지 고모 강미미 씨

배용준 부부 행적을 취재한 뒤 교민회에서 다시 만난 강미미 씨는 스크랩해둔 자신의 사진첩을 보여주며 20대 젊은 시절을 향수처럼 털어놨다. 알고 보니 그는 1980년대 초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연예인이었다. 섹시한 몸매를 자랑하며 당시 인기를 누린 선데이서울 주간한국 주간경향 등 대중주간지 표지를 자주 장식했다.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하와이에 정착했다.

강수지 고모 강미미 씨는 첫 정규앨범을 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김국진 강수지의 비밀을 귀띔했다. 그는 "소녀처럼 순수한 수지한테 착한 김국진 씨는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멘트를 날렸다. 〈강영미 씨 제공〉

놀랍게도 그는 가수 강수지의 친고모였다. 강 씨의 해외 이주는 강수지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시기와도 맞아떨어졌다. 이혼 후 하와이에서 호텔 임대사업을 하며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고, 교포사회 지인들과 폭넓게 어울리며 노래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필자는 그가 베푼 친절과 조력이 너무 고마워 "한국에 오면 꼭 식사를 한번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강 씨가 연락을 해왔다. 서울이었다. 약속대로 명동 한복판에서 만나 약소하지만 근사한 식사를 함께했다. 그가 서울에 온 이유는 정규 음반을 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쨌든 반가웠고, 하와이에서의 고마움을 이번엔 내가 답례할 차례였다. 오랜 기간 대중문화 기자로 잔뼈가 굵은 필자는 중견 트로트 가수나 작곡가들과도 교분이 두텁다. 국내 가요계 물정이 어두운 그가 환갑 넘어 숙제처럼 고대하던 첫 정규앨범을 내는데 적극 발 벗고 나섰다.

강수지 고모 '가족 얘기' 끝에 "김국진 씨랑 결혼을 약속한 것 같더라"

한 달가량 서울 생활을 끝내고 하와이

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그동안 내 일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신 강 기자님 덕분에 음반을 만들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수지가) 김국진 씨랑 결혼을 약속한 것 같더라"고 했다. 느닷없는 강수지 결혼 얘기에 귀가 번쩍 틔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오늘 하와이로 떠나야 해서 어젯밤 수지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요양병원에 있는 올케(수지 엄마)도 잠깐 봤다. 오빠(수지 아버지)가 미국의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영구 귀국하면 상견례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와이 교민회에서 만나 배용준 박수진 행방 취재에 도움을 준 가수 강수지의 친 고모 강영미 씨는 80년대 초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연예인이었다. 〈강영미 씨 제공〉

안 그래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국진 강수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던 터다.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만한 '깜놀' 정보였다. '불타는 청춘' 제작진은 물론 가까운 동료들한테도 전혀 눈치채지 않게 단속한 철통 비밀이 강수지 본인의 입으로 확인된 셈이다. 강수지 처지에서 보면 하와이에 있는 고모만 아는 비밀이 어떻게 새나갔을지 기가 찰 노릇이지만, 세상사는 얽히고설켜 있고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한술 더 떠 강수지 고모 강미미 씨는 "소녀처럼 순수한 수지한테 착한 김국진 씨는 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코멘트를 날렸다. 김국진이 강수지 딸 비비아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과 병석에 있는 예비 장모를 문병한 사실도 자연스럽게 확인됐다. 워낙 확실한 소스였으니 취재고 뭐고 따로 할 게 없었다. 강수지 가족을 둘러싼 정황 취재와 김국진의 근황, 그리고 두 사람이 '불타는 청춘'에서 주고받은 각종 어록(語錄)을 정리했다. 연인, 아니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단정하고 다시 들여다보니 그동안 서로 교감한 말의 행간마다 확실히 사랑이 뚝뚝 묻어났다.

기자에게 취재원은 '작은 인연도 소중', 우연 아닌 따뜻한 인간미 교감

'김국진-강수지 사랑'은 시청자 열망으로 만개(滿開)하고 결실을 맺었다. 함께 출연하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썸을 타다 실제 커플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 시청자들은 둘 다 한 차례씩 실패를 맛본 중년 싱글 커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이한 건 연예계에 쏟아지는 숱한 열애 보도 가운데서도 김국진 강수지의 경우는 단 한 명의 '디스'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팬들은 "당장 결혼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 제발 이 멋진 사랑을 지켜 달라"고 응원했다.

향후 프로그램 콘셉트를 조율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을 '불타는 청춘' 제작진들까지 "정말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라며 온통 축하 인사를 퍼부었다. 열애 소식 한 달 뒤인 그해 9월 김국진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개한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 예능계 독보적 위상을 유지해오던 유재석마저 강수지와 김국진의 '보랏빛 향기'에 밀렸다. 통상적 열애 보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1년 8개월 만인 2018년 6월 23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스몰 결혼식을 올렸다.

필자는 1989년 6월 1일 서울신문 출판국에서 수습기자를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스포츠조선으로 옮겨 20여 년간 스포츠신문 전성기를 보낸 뒤 〈더팩트〉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필드를 뛰고 있다. 현재까지 만 30년째 같은 일을 하면서 터득한 깨달음은 주변의 누구라도 취재원이 되고, 아주 작은 인연도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배용준 박수진 하와이 행적 팔로' 도중 만난 강수지 친고모 강미미 씨와의 인연은 단지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이후 그와 주고받은 교감은 기자와 취재원의 의례적 관계가 아닌 따뜻한 인간미였다.